

## 초창기 한국 휴먼다큐멘터리의 시대적 분석 연구\*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뵉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중심으로-

함 현<sup>1\*</sup>

<sup>1</sup>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 A Study on the Early Era of Korean Human Documentary: an Analysis of Norbert Weber's <Land of the Morning Calm>

Hyun Hahm<sup>1\*</sup>

<sup>1</sup>Dept. 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1920년대 한국의 일상생활문화의 모습을 담아낸 휴먼 다큐멘터리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가 지향하는 시대적 기록성과 사회적 목적성에 의한 표현은 기록중심의 계획된 에세이의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뵉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분석결과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관찰자적 양식의 접근 방식은 시대적 기록과 역사성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타자의 시선에 비취진 인물의 관찰과 기록은 수용자에게 중요한 믿음의 상징체계를 구현하고 휴머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적 표현 양식의 결과 분석에서는 다양한 프레임의 구성에 따른 관찰과 대상의 리얼리티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 to figure in contemporary human documentary as a cultural aspect of daily life in the era of 1920s in Korea. The significant of documentary exams the record and social-oriented representation methods of important essay of works. The result of an analysis of Norbert Weber's <Land of the Morning Calm> with historical figure of modern Korea society given the appearance of a human observer ever put out a human form of the documentary format in accordance with the configuration of visual narrative and the structure of the recipient to implement the symbolic value of belief. And, the result of the technical expression of the various frame works with the configuration of the reality of importance of human values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being analyzed.

**Key Words** : Direct Cinema, Frame Works, Human Documentary, Narrative, Storytelling

## 1. 서론

다큐멘터리의 근원적 시발은 관찰과 기록 중심의 영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되었다. 특히 개인의 일상적인 모습인 사적 영역에서부터 기록되었던 사항들이 현재는 우리사회의 공적인 영역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규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촉매적인 역할은 다큐멘터리의 역사성을 대변하고 다양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휴먼다큐멘터리의 특징은 플래허티(R. Flaherty)의 인류학적 접근에서 시도되었던 '기록적' 내용의 특징과 더불어 그리어슨(J. Grierson)이 강조하였던 '사회 목적성'에 의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1]. 플래허티와 그리어슨은 1920~30년대 초기 다큐멘터리 필름제작자로서 중요한 다큐멘터리 전통을 수립하였다. <북극의 나눅>(Nanok of the Northe)(1927)등 인류학적 다큐멘터리의 창시자인 플래허티는 "다큐멘터리는 발견과 폭로의 예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다큐멘터리의 기록적 기능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의 1930년대 사회다큐멘

\*Corresponding Author : Hyun Hahm(Chungwoon Univ.)

Tel: +82-41-630-3265 email: poparts@chungwoon.ac.kr

Received December 24, 2013 Revised January 6, 2014

Accepted January 9, 2014

터리의 전통을 수립한 그리어슨은 다큐멘터리는 현실(실제)의 창조적 해석(a 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이라고 정의하며, 다큐멘터리의 기능과 사회적 목적성을 강조 [2]한 점으로 비춰볼 때, 사실적 이야기의 기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지 기술이 아니다 [3]. 플래허티와 그리어슨이 정립한 다큐멘터리의 기록과 관찰의 태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상황과 다양성의 경험을 중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르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다큐멘터리의 영역이 개인의 일상적인 사적영역에서 출발되어 공적영역의 확산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수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결국, 다큐멘터리의 역사성을 비춰볼 때 한정된 시간에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촬영과 편집의 과정을 거쳐 절제된 영상의 시각적 내러티브의 구성은 항상 새로운 소재 발견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의 역사성은 시대를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의 자료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비춰진 시대적 역사성과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1920년대 한국의 모습을 담아낸 독일인 선교사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교묘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선정하였다. 이 작품은 한국 근대사의 모습을 담아낸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당시의 시대적 기록과 사회성이 타자의 시선에서 비춰진 한국인의 일상적 생활의 모습을 담아낸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작품에 비춰진 다큐멘터리의 관찰과 기록중심에서 표출된 인간 중심의 휴먼다큐멘터리의 표현 방식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다큐멘터리의 관찰과 기록의 특성

다큐멘터리의 역사성으로 비춰볼 때 기록중심의 계획된 에세이 형식으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기록의 대상은 우리 생활주변의 소소한 일상 생활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영역의 대상으로 확충되었다. 그로인한 다큐멘터리의 관찰자적 양식의 특성은 한정된 시간에 계획된 촬영과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 절제된 영상의 시각적 구성형식과 내러티브 전달

방식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큐멘터리의 관찰과 기록의 특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대상은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특징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식의 특성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서 촬영과 편집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절제된 시각적 구성형식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성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즉 다큐멘터리는 실재를 반영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리얼리티의 획득으로 인한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의 관찰과 기록의 형식은 루이 루미에르 형제로부터 제작된 영화의 표현 기법인 '다이렉트 시네마(direct cinema)'의 기법과 시네마 베레테 기법으로 전환되어 연출자가 사건에 개입함으로 더 큰 자연스러움과 진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연출이 단초를 마련하였다[4]. 또한 진실성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요소를 확립하기 위한 카메라의 개입은 '사실(reality)'을 기록하고 '진실(truth)'을 추구하는 다큐멘터리의 통념적 기능이 역사적으로 대두되었다[5].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관찰자적 접근방식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념을 추구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실'과 '진실'의 표현방식은 실제적 상황을 기록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다큐멘터리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실성과 진실성을 동반한 리얼리티를 강조함으로써 인간 가치를 고양[6]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수반한다.

### 2.2 휴먼다큐멘터리의 진실성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휴먼다큐멘터리의 진실성은 관찰과 기록에서부터 출발되었다.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정석으로 대표되고 있는 1922년 작품인 플래허티 감독의 <북극의 나뭇>은 휴먼다큐멘터리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휴먼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인간의 흥미와 감동으로 이어지는 가치적 기능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사실과 진실의 개입대상을 적용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다이렉트 시네마 기법의 촬영 방식은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찰자적 양식을 추구한다.

타자의 시선에서부터 관찰되고 기록으로 이어지는 휴먼다큐멘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규범과 가치를 담아내는 가치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인간의 평범한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한계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구조와 정서를 담아냄

으로써 인간 가치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감동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표출된다. 결국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 기술적 상황의 묘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큐멘터리가 접근하는 대상과의 유동적인 접근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타자와 대상과의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대상과의 접근 방식에서 취하고 있는 사실과 진실성의 측정범위는 어디까지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카메라 촬영장비의 간소화에 따른 제작 방식의 편리성에서 벗어나, 대상과의 밀착된 근거리의 설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본질적인 진실성을 밝혀내는 거울의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진실성과 타자의 시선에 비춰진 작가 주위적 관점에서부터 시작된 대상과 함께 내포되어 있는 차이의 간극을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찰자의 기술이 요구된다.

### 2.3 휴먼다큐멘터리의 의미구성과 전달방식의 특성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휴먼다큐멘터리의 영역은 지속 발전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른 휴먼다큐멘터리의 의미구성과 전달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담론의 형성이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영상과 소리의 융합에 의한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고 시퀀스를 만들어가는 내러티브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카메라가 대상과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의 모습에서 표출되는 진실을 포착하기 위한 끊임없는 방법론을 제작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찰자적인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의 의미도 있으나, 대상과의 친밀하거나 밀착된 관계형성에 있어서 얻어낼 수 있는 의미구성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표출하게 된다.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큐멘터리는 사회감시자(watch-dog-group)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삶의 문제에 따른 인권과 보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휴먼 다큐멘터리에서 표현되는 시선은 의미를 구성하고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실그대로는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의 구성은 가장 효과적인 전달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제작자의 활

영과 편집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는 내화면의 대상과 보이지 않는 외화면의 간극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대한 묘사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은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성방식에 있어서 의미전달의 창구역할을 한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터뷰 정보채집 방법의 원형적 기반을 마련한 상호작용의 양식[7]은 진실성을 확대하는 다큐멘터리제작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관습화된 방식으로 수용자에게 절대적 믿음의 상징체계를 구현한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제작자의 관찰대상에 설득되지 않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근원적인 상황과 더불어 증거로서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4 휴먼다큐멘터리의 시각적 구성형식과 특성

휴먼다큐멘터리에서 표현하는 시각적 구성 형식과 특성은 다양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다큐멘터리는 영상을 매개로 한 인간과 그 주변 환경에 관한 인간적인 이야기의 한 방식으로 자기의식의 표현이자 자타간의 결과물[8]은 다양하게 의미를 구성하고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 가운데 사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역할과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단일 시점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진 이미지는 내러티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기록의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휴먼 다큐멘터리의 시각적 구성 형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포토영상 활용의 특징은 프레임의 내·외화면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각의 주체가 되고 고정된 시점의 시각화가 형성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포토 이미지의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영상의 이미지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시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움직이는 화면에 정지된 포토 영상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과정에서 관찰과 설명의 양식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관찰양식이 특성은 어떤 상황을 카메라가 관찰할 뿐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영상 자료나 기록 자료화면들이 해당된다[9].

휴먼 다큐멘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관찰의 대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주관성을 최소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수용자에게 설득을 강요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위한 내러티브 전달의 중요성이 인식된다. 휴먼 다큐멘터리에서 표현되고 있는 시각적 구성형식은 수용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포토영상을 활용한 시각적 구성형식은 설명적이거나 사실적인 역사적 반증의 자료로 활용되는 기록의 도구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 3. 텍스트 분석: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1910년부터 1920년대 근대 한국의 모습을 기록한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기록과 휴먼 다큐멘터리로 한국의 근대사적 모습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역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근대사의 시대적 '기록성'의 목적에 의해서 제작 되었으며 '사회 목적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포토영상을 활용한 시각적 구성형식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진실성을 담아낸 모습을 통해 중요한 역사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이다.

#### 3.1 스토리 콘텐츠 형식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에서 분석되어진 스토리의 구성형식은 휴먼 다큐멘터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인물 중심의 기록성에 의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인물중심의 기록성에 의한 스토리 콘텐츠의 구성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삶의 모습을 재조명함으로써 휴먼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삶의 모습은 기록성에 의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시대적 고난과 어려운 생활환경의 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타자의 시선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는 독일 선교사로 이방인의 시선에 비취진 한국인의 모습을 단순히 기록하고 목적에 의해 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타자의 시선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인과의 대화, 식사하는 모습 등은 자연스러움에서 묻어 나오는 친숙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취진 한국의 모습을 통해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를 설립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진실된 모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3.2 스토리 구조

1925년대에 촬영된 영화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의 개념에서 그는 한국을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신학학교를 설립하고 지방을 다니면서 한국인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과 함

께하는 일상생활의 모습과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적 사항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선교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영상이 아닌 앞서 언급한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에서 비취진 다양함을 통해 한국인의 유교전통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의 혼을 담아내는 전형적인 휴먼다큐멘터리의 기록성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에 의해 잠식되어가는 조선을 안타까워하며 조선만의 문화,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 3.3 인물의 도상적 표현 양식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에서 촬영된 인물의 도상적 이미지가 표현되는 상징적인 체계는 그 당시 한국의 모습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관찰자의 기록성에 의해서 촬영되어진 이미지임에도 타자의 시선을 벗어나 수용자의 감정구조를 몰입하는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인물의 도상적 표현 방식의 특징은 관찰되어진 기록성에 의한 인물의 모습과 기록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촬영된 이미지의 두 가지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관찰되어진 기록성에 의한 한국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모습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으로 다큐멘터리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인 기록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은 가족사진 또는 기념사진 등의 모습에서는 카메라를 응시하는 시선이 고정되고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표출된 신체 이미지의 특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있는 상황에서 두 손을 모으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의 도상적 표현 양식의 특징은 우리의 감정구조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친근하고 정서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 3.4 기술적 표현 양식의 특성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에서 표출되고 있는 기술적 양식의 표현에 대한 특성은 시간적 공간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으로 두고 있는 동시에 휴먼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인물 중심의 기록성에 의한 목적으로 촬영되어진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연스러운 이미지와 의도적으로 생산된 이미지의 공존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미학적 접근 및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피사체의 다양한 신체의 모습과 행동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4.1 프레임 구성

일반적인 인물의 화면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적절한 프레임의 구성과 배치이다. 특히 프레임의 화면구성은 내화면과 외화면의 분리적 상황에 따른 영상 이미지의 정보 전달과 해석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영화에서 등장인물의 화면구성은 인물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큐멘터리의 전형적인 관찰자적인 양식에 따른 표현 방식에 충실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포토영상의 화면구성에 따른 프레임의 공간배치와 인물의 상황적 묘사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감정적인 정보 및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포지셔닝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장비의 기술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감각적인 영상 이미지의 시선을 수용자의 시선을 끌기위해 부족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 3.4.2 프레임 안과 밖의 구성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상 특정한 장소와 공간을 중심으로 인물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편집의 과정은 현대적 스타일과 특성에 따른 재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안과 밖, 즉 내화면과 외화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포토영상의 화면 구성에 따른 프레임 안과 밖의 구성 대비는 영상과 함께 효율성에 의한 기록성과 내용전달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고 있다.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공간적 활용은 과거의 역사적 기록성에 의한 자료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프레임 안과 밖에서 보이는 내러티브의 구조 형식은 등장인물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균형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술적 관점에서의 인물 구성과 공간적 상황의 모습은 다양한 카메라 쇼트의 구성에 의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 3.4.3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 위치 설정에 따른 다양한 화면의 구성은 카메라 쇼트의 사이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균형감 있는 표현은 관찰자의 시선과 피사체와의 적절한 거리와 위치 설정에 따른 인물의 표현은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의 위치는 피사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카메라의 위치는 시각적 진실

성을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른 카메라 장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피사체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노출의 적절성을 표현하기 위한 카메라 앵글의 시각적 구성은 높이 평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서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인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담아내기 위한 우선적 행동이 관찰자와 대상자간의 친숙함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피사체와 인물들의 자연스러움의 표현이 의도적으로 생산된 기록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깝거나 먼 거리에서 유동적인 카메라의 위치를 확보 하였다는 점이다.

### 3.4.4 편집

이 영화에서 분석되어진 편집의 특성은 대부분의 영상 편집의 기본적인 쇼트 편집에 의한 화면구성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별적인 카메라 쇼트의 시퀀스 연결방식은 기록에 의한 영상 자료를 스토리로 구성한 편집의 진행 방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담아내기 위한 큰 화면의 구성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기 위한 작은 화면의 구성은 계획되어진 카메라 쇼트의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포토영상의 화면구성에 의한 가장 큰 특징은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통한 상황적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각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이미지의 장면전환의 특성은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시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의 힘을 갖고 있다.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영상 편집의 기술적 특징은 포토영상을 활용한 불연속적인 장면을 규칙적인 쇼트 편집구성으로 봉합한 메시지 전달의 주의를 끌고, 과거의 추억 또는 역사적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1920년대 한국의 실생활과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휴먼 다큐멘터리의 특징인 관찰자의 기록성과 사회적 목적성에 의한 중요한 기록 영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일인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담아낸 기록성과 자국민의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선교의 목적으로 한국 사회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종교적 개척을 위한 기록의

내용을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 진실성이 부각되는 작품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록되어진 한국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도상적 이미지의 특성으로 비춰볼 때, 그 당시 우리의 생활주변의 인물들의 모습은 인간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록과 휴먼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포토영상을 사용한 정적인 구도에서 표현된 인물의 모습은 삶의 모습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수용자의 감정구조의 해석을 요구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록적' 내용과 '사회목적성'에 비춰진 한국의 모습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되고, 인간의 가치적 삶의 모습에 대한 진실성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영화의 기술적 특징에서 살펴본 결과 정적인 구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포토영상의 화면 구성은 단편적인 시각적 대상을 통합하고 이미지와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자기 성찰적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리얼리티를 전달하고 진실성을 표현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잘 담아내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인의 역사적 모습과 실생활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의 '기록성과' '사회적 목적성'에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되는 한국 근대화 모습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분석된다.

※ 본 논문은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References

[1] Hahm Hyun, "A Study on the Reflected on Human Documentary with the Content of Record Story, Proceeding of the KAIS Fall Conference, p.774, 2013

[2] Lee Jong-Soo, "Korean Human Documentaries in the Changing Historical Content: An Analysis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ocumentary Text and Social Context" Vol.2, No.2. p.39, Media & Society, 2002

[3] Rothestein Arthur, 『Documentary Photography』, p.15, Nootbit Publishing, 1995

[4] Doelker Christian, 『What is the Reality in the Media?』, Communication books, pp.106~108, 2001

[5] Seo Hyun-Suk, "The Awful Weight of 'Truth': Michal More and the Mobility of Documentary For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8, No.6, p.399, 2004

[6] Hahm Hyun, All over of all, p.775, 2013

[7] Seo Hyun-Suk, All over of all, p.408, 2004

[8] Kim Kun & Chun Ku-Chan, 『Documentary and History: Formation of the Korean TV Documentary』, p.21, Hanulbooks, 2003

[9] Shin Myoung-Hee & Kim Chang-Sook, "Acceptability Study of Applied Media Aesthetics Factors in TV History Documentary", p.304,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06

## 함 현(Hyun Hahm)

[종신회원]



- 1997년 7월 : California State Univ, Los Angeles (Radio & TV Broadcasting, Film)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언론학석사)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 박사수료)
- 2002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방송영상, 영상커뮤니케이션, 영상문화